

지역 소식통

고창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고창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내 주택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1대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 이상을 말하며, 이는 주택화재 초기 대응에 있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장비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단독주택과 같은 일반 주택에서 발생하며, 감지기나 소화기만 설치되어 있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기열 대응예방과장은 “주택 화재는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 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감지기가 없을 경우 초기 대응이 어렵다”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큰 소리로 경고를 울리기 때문에 화재 사실을 빠르게 인지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운영주체 역량

강화 교육 · 성공사례 공유

정읍 정심마을의 도시재생 성공 경험이 전북 지역 거점시설 운영자들에게 실질 교육으로 전해졌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정읍시 정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한 ‘2025년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주체 교육’이 최근 정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교육은 도내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주체 ·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자립 운영과 수익 창출 등 실질적인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됐다. 오전에는 연지동 청춘활력소에서 정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거점시설 운영과 활성화 방안, 수익모델 발굴, 시설 유지보수 등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강의가 이어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민선8기 3년 맞이 소회 · 다짐

“변화하는 고창보면서 힘낼 수 있었어요” 부서장들이 전하는 3년 소회 심덕섭 군수 “민선 8기 성과는 부서장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 덕분 감사”

고창군이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과장급 공무원들의 그간 소회와 다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30일 오전 군청 2층 회의실 심덕섭 군수 주재로 22명의 부서장들과 14명의 읍·면장이 함께하는 확대간부회의가 열렸다. 특히 이날 회의는 민선8기 출범 3년을 맞아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전했다.

서지근 기획예산실장은 “많은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청렴도 평가 최우수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엔 ‘하면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3년을 돌아봤다. 이어 서지근 실장은 “많은 사업과 성과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더 좋은 정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진 농업정책과장은 “10년 넘게 지역 농업인들과 부대끼며 일해왔는데 가장 큰 숙제였던 ‘일손부족’ 문제

의 실마리가 풀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정권이 바뀌고 지역농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희망찬 미래농업을 위해 더 현장과 소통하고 배워가겠다”고 밝혔다.

최순필 세계유산과장은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를 성공으로 치러내고 특급호텔 등이 들어서면서 확실히 고창을 방문하는 분들의 평가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며 “보안성과 세계유산축전이 역대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황민안 신활력경제정책관은 “30년 군민 숙원 노을대교의 사업비 증액과 서해안철도의 대통령 공약변영이 이뤄졌다

전북도의 올림픽 후보도시 선정과 맞물리며 ‘국제카누슬라럼경기장’ 추진도 순항중이다”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직

원들과 현안업무를 챙겨가겠다”고 말했다.

오수목 사회복지과장은 “보훈회관이 지어지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활력수당이 지급되고, 경로당 양곡지원 방식도 개선되면서 지역사회복지가 더 촘촘하고 세밀해졌다”며 “고창군민 누구나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고창에 살아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덕섭 고창군수는 “민선 8기의 많은 성과들은 여기있는 부서장들과 여러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맡은바 업무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심덕섭 군수는 “인사이드와 조직개편 등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폭염 · 집중호우를 비롯한 여름철 재난 대응에 한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관광택시로 편하게 즐기세요”

여름 휴가철 관광택시 50% 할인 이벤트 실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부안 관광택시 50%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여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고 여유롭게 부안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안 관광택시’는 관내 어디든 관광객이 원하는 목적지에 맞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예약형 교통서비스로, 자가 차량이 없는 여행객이나 효율적인 동선을 원하는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맞춤형 서비스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관광지나 도로 중심 코스인 변산반도길과도 연계하여 이용이 가능해, 다양한 여행 방식에 적합하다.

이번 할인 이벤트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여름철 관광 수요에 맞춰 관광택시 요금이 기존 대비 절반으로 인하된다.

관광택시는 1대당 최대 4명까지 동



승할 수 있으며, 3시간 코스는 기존 6만 원에서 3만 원으로, 5시간 코스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6시간 코스는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각각 50% 할인된 요금이 적용된다.

부안군민을 제외한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에 따라 중간 합류나 도착지 지정 등 유연한 이용도 가능하다.

가족 단위나 고령층 등 교통 접근이 불편한 관광객에게도 실용적인 교통 수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2기 11일까지 모집

정읍시가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응원하며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2025년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사업(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인원은 13명으로,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초기 청년 창업가가 대상이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된 정읍시의 대표 청년 정책으로, 창업자금과 컨설팅을 연계 지원해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까지

총 23명의 청년 창업가가 선발돼 사업장 구축, 재료비, 임차료 등 실질적인 창업비용을 지원받았다.

2기 참여자로 선발되면 시가 운영하는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에 참여해야 한다. 교육 이수 후에는 최대 3년간 연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4월에 진행한 1기 모집을 통해 7명의 청년 창업가를 선발하고 두 달간의 컨설팅 과정을 성실히 마친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모집 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재해우려가구 전수조사 실시

고창군이 관내 재해우려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주거개선 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고창군청 주거복지팀 주관으로 노후 불량주택, 지붕 붕괴 위험, 배수 미흡 분야 위험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과 점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이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홀몸 어르신 등에 대한 보호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갑수,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등 기존 주거지원사업과 연계해 즉각적인 정비가 진행된다.

일반가구라도 안전진단 결과 구조적 위험이 있거나 생활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공지원 또는 민간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집수리를 추진하거나, 이주 연계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조사는 단순 실태 파악을 넘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로컬푸드직매장 본매장, 7월 1일 개장

부안읍 봉덕리에 새단장

부안군은 7월 1일 부안읍 봉덕리 294-1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안로컬푸드 본매장을 새롭게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장은 부안의 대표 먹거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부안로컬푸드직매장은 군이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의 발전을 목표로 조성한 시설로 부안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납품해 정직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적정 소

득을, 소비자에게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정가·정량·정품 원칙을 철저히 지켜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매장에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연 본매장은 기존 시설의 한계를 보완해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지역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 축산물, 수산물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인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폭염 · 가뭄 피해 최소화해 총력”

이학수 정읍시장이 본격적인 무더위와 가뭄에 선제 대응해 농작물 및 각종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6월 30일 오전 열린 영산강부회의에서 여름철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폭염과 마른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설물 손상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서별로 위험요

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등 현장 부서는 농작물 과수, 축산 분야의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과 점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이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홀몸 어르신 등에 대한 보호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